

미륵세상의 의미...새로운 미래 기원을

CULTURE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황순칠 개인전’ 21일부터 인사아트센터

22회 개인전 이후 15년만...40여점 작품

고인돌마을에서부터 배꽃, 매화, 운주사천불천탑, 경주 남산의 조각상, 그리고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에 이르기까지 집념어린 작업과 ‘피아노 치는 화가’ 답게 매년 배코음악회를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여온 중견 황순칠 작가의 제23회 개인전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작품작은 운주사 천불천탑을 중심으로 한 40여점.

이번 개인전은 2010년 부산에서 22번째 개인전을 연 이후 15년만에 마련된 자리다.

특히 그의 운주사 작업은 사계에 걸쳐 13년 동안이나 지속됐다. 머리카락이 없는 그를 운주사 산야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스님이나 도사로 바라봤다.

그곳에서 살다시피하면서 작업을 하다보니 스님들 또한 그를 다 알아볼 정도로 거의 상주하며 작업에 매진해 태어난 작품이 운주사 천불천탑이다. 운주사 천불천탑하면 화단에서 그가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처럼 운주사에 빠진다는 2013년 3월 전남 담양 남면 독수정에서 매화를 작업하던 중 이곳 정원 돌담에서 기도와 소원의 희망이 운주사 향아리 돌담으로 이어지면서 작업이 시작됐다. 매일매일 매화를 그리던 중에도 둥근 탑이 화폭보다 가슴에 먼저 그려지자 매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운주사로



는 작품들이다.

그것은 작가가 작품을 도난당한 적이 있었는데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3~4단계까지는 조사됐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조사 진척이 이뤄지지 않아 도난당한 작품을 자신이 반대로 매입해 제자리로 가져다 놓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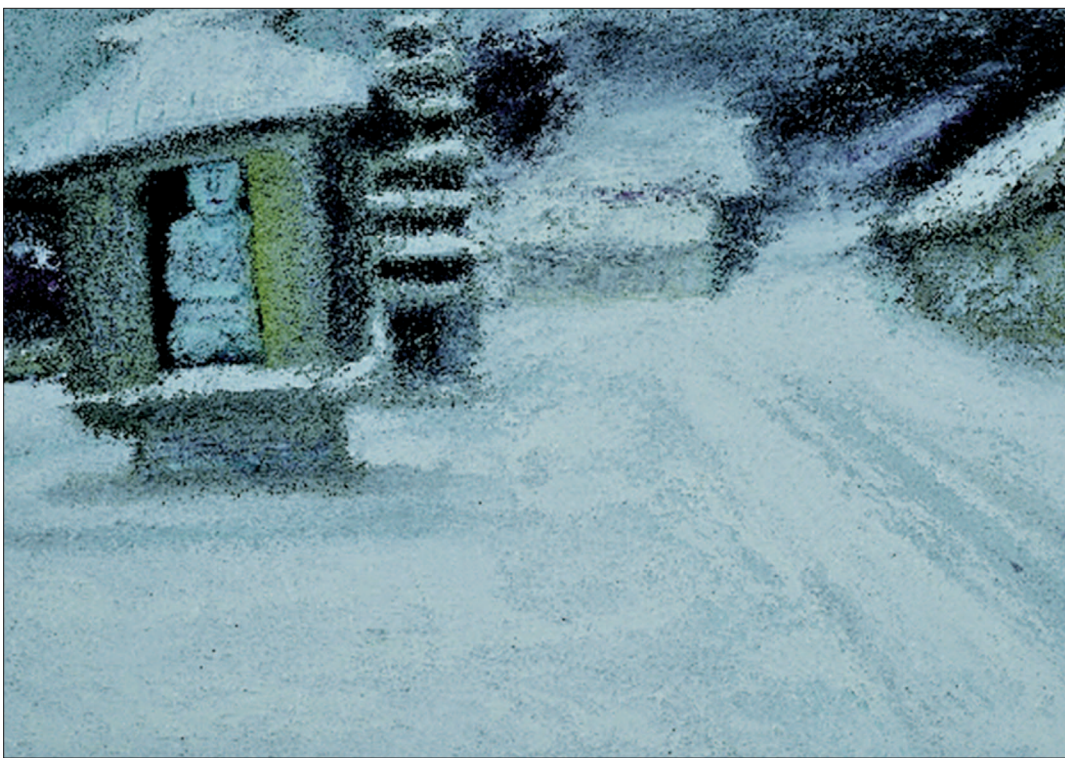
도난당한 자기 작품은 자신이 구매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작았다면 그리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애초 작가는 서예와 울산 반구대에서 벌였던 현장작업들을 전시로 선보이려고 했으나 12·3비상계엄이 발발하면서 미륵세상의 의미를 되새겨보기 위해 운주사 전시로 바뀐 선보이게 됐다. 그는 12·3비상계엄으로 어두운 나라가 된 것에 분노의 마음

달려가 40호 크기로 운주사를 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인 120여점 중 40여점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이번 전시에서는 100호나 80호 넘는 작품이 절반에 달한다. 모두 그림 밑에 작가 사인이 없



‘눈보라 몰아치는 정적의 감실불’ (A still enshrined Buddha in a blizzard)

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하다. ‘와불이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정한 이유다. 작가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시에 투영하고 있다. 전시에는 12·3비상계엄 이후 작업한 5점도 출품한다.

그는 운주사에서 스케치를 하면서 ‘입석불’, ‘와불’, ‘좌불’, ‘감실불’, ‘탑’ 등의 작품을 두루 작업했다.

그의 작업 초창기에는 고인돌 마을 등처럼 갈필

법을 구사했지만 지금은 갈필법을 고수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는 갈필법처럼 갈필의 효과를 내고 있을 뿐이다. 갈필법은 서예나 동양화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다.

정찬주 소설가는 해설을 통해 “그의 운주사 겨울 풍경 작품을 보면 마치 눈보라가 그림 밖으로 뿔쳐나올 것 같다”면서 “그에게 인생 선배로서 고답이라는 호를 지어준 적이 있다. 그는 몹시 쑥스러웠지만 고회를 넘긴 나이이니 괜찮다고 권하니 받아



‘감실불’ (Enshrined Buddha)

들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저돌적으로, 필사적으로 화업에 매달려 왔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표현해낸 작가야말로 남도에 사는 향토화가로서 세계성을 선취했다고 봐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가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작가는 2003년 첫 서예개인전 이후 22년만에 두 번째 서예개인전을 오는 10월 개최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시와 선율로 꽃피우는 ‘오월광주의 빛’

5·18 45주년 기념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

내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양시립합창단 등 대규모 무대

80년 5월 광주정신이 고 문병란 선생의 시와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진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 공연이 20일 오후 7시 30분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사)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광주시와 라인문화재단이 후원한 이번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이해 송고한 오월정신을 지역과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마련됐다. 대규모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오라토리오 형식으로 웅장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는 광주의 대표적 민족문화가이자 시인인 고 문병란 시인의 5·18 관련 시에 김성훈 작곡가가 합창과 관현악 반주를 붙여 만든 서곡을 비롯한 13곡으로 구성된 교성곡이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오월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빛고를 광주가 나아가야 할 희망찬 미래를 노래한다.

작품은 관현악 서곡과 아내의 탄식의 노래로 시작해 합창단의 절절한 외침으로 죽임 당

한 영혼들을 표현한다.

어린소년의 죽음을 노래한 ‘제3곡, 저는 그냥 죽었어요’는 항쟁 당시의 상황을 극적인 묘사와 시어를 통해 표현하고, 이어 ‘구두담이의 노래’, ‘남편의 노래’는 힘없이 죽어간 영혼들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6번째 ‘전라도 빠꾸기’와 7번째 ‘부활의 노래’에서는 죽음을 넘고, 시대의 아픔을 넘어 부활의 노래로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의 합창곡이 이어진다.

8번째 ‘아아 광주여 5월이여 그날의 일체감 이여’는 5·18의 신념과 미래의 염원이 담겨있다. 또 희생자를 그리워하는 ‘갑갑한 어둠이’와 연인의 이종장 ‘누가 우리를...일어나거라’, 결연의 의지를 담은 ‘아직 슬퍼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어두운 역사에서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무릎을 향하여’를 노래한다.

피날레를 장식하는 13번째 곡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는 광주정신이 세계로 뻗어 나가길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담긴 노래 글로, 광주정신이 지향해야 할 미래에 대한 작곡가의 염원이 잘 드러난다.

이날 연주는 김영연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의 지휘 아래 광양시립합창단이 노래하고 빛고을심포니오케스트라가 반주한다. 메조소프라노 김향은, 테너 김홍용, 바리톤 조재경, 소년 한재연 등 솔리스트들이 독창과 이중창 등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 시간은 60여분이며, 입장권은 현장에서 발권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입센 희곡 ‘인형의 집’으로 예술 산책 떠나요

광주예술의전당은 기획공연 ‘11시음악산책’ 명작시리즈 두번째 무대를 20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연구가인 안인모(사진)의 해설과 함께 근대 희곡의 대표작 ‘인형의 집’을 중심으로 책과 그림, 음악을 엮어 80분간 관객과 함께하는 예술 산책을 떠난다.

‘인형의 집’은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이 쓴 3막짜리 희곡으로, 1879년 12월 출판된 후 그 해 12월 21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덴마크 왕립극장에서 초연됐다.

노르웨이의 한 도시를 배경으로 남편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주인공 노라가 스스로의 삶과 가치를 돌아보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발표 당시 사회적 통념을 깨는 여성의 결단을 그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페미니즘 문학의 시초로 평가받는다.

입센의 자필 원고는 그 역사적 가치와 문학성을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GAC 기획공연 11시음악산책

‘명작시리즈2’ 내일 광주예당

콘서트가이드 안인모 해설

몽마르트 밴드 상송 등 연주



등재됐다.

이날 함께 살펴볼 그림은 프랑스 여성 화가 마리 로랑생의 ‘마드모아젤 샤넬의 초상’이다. 샤넬과 로랑생, 두 여성 예술가의 교감도 예술적 독립성은 ‘인형의 집’의 주제와 맞닿아 있으며, 공연에 깊이 더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부 ‘인형 아가, 인형 아내’, 2부 ‘코르셋을 벗어 던지고’, 3부 ‘집을 나서는 노라’, 4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등 총 4개 주제로 구성된다.

‘오늘 밤 홀로’, ‘무관심’, ‘아름다운 인생아’, ‘사랑의 찬가’, ‘파리의 하늘 아래’, ‘빠담 빠담’ 등 대표적인 상송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재즈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몽마르트 밴드가 선보인다.

벨기에에서 연극을 전공한 보컬 미선 레나타를 중심으로 아코디언 데이브 유, 피아노 폴 커비, 베이스 송미호, 기타 박윤우, 드럼 송하연 등이 무대를 꾸민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몽마르트 밴드

亞문화전당 ‘민주·인권’ 가치 담은 숏폼 공모

일반·인공지능 활용영상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민주·인권·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2025 ACC 민주·인권·평화 숏폼 영상 공모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민주·인권·평화 가치’, ‘5·18민주화운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이다. 응모자는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거나 종합해 30~60초 분량의 숏폼 영상을 창작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일반영상과 인공지능 활용 영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작도 가능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

공모전은 연령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청년·일반부와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부로 구분해 추진한다. 응모자는 개인 또는 2~5인 팀으로도 참



가할 수 있으며, 1인(팀)당 최대 3편까지 응모할 수 있다.

ACC는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총 22개 작품을 선발, 오는 9월 1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입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상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총 28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채널 ACC, 미디어 월, 누리소통망(SNS) 등 ACC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교육 및 공공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응모 접수는 ACC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응모작과 함께 전자우편(52songa@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ACC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전’은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8회째 운영 중이다. 지난해는 2023년에 선정된 캐릭터를 활용한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대중과 소통하는 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

한국사 강사 황현필 특별강연회

29일 순천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전남도와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홍영기)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전라도 역사이야기’ 특별강연회를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순천에 위치한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사로는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한국사 강사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가 나선다. 황현필 소장은 전남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이순신의 바다’, ‘요즘 역사 : 근대’,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 등 다양한 저서와 강연 활동을 통해 한국사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강연에서는 ‘전라도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 ‘3·1운동 이후 지역 민족운동 조직의 형성과 확산’, ‘해방 전후 전라도의 정치·사회 변화’, ‘민중 주체의 항일운동 사례’ 등 전라도가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한 위상과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김다경 기자